

News

시중은행, 코로나로 매출 준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중앙일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최대한 내리지 않기로 결정. 신용등급이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금리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때 비재무적 평가/회복 가능성을 반영. 코로나19가 매출 감소의 주원인인 경우 등이 비재무적 요소

은행 예·적금 이탈 가속...주식·코인으로 머니무브

뉴시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중도 해지된 정기 예·적금 통장 개수는 843.2만개로 2019년보다 105.6만개 증가. 16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를 채웠을 때 보다 이자를 덜 수취.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로금리 기조에 투자처 잃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등으로 대거 유입

카뱅·케뱅크, 증금리대출 속도전...시중은행과 '차별화'

데일리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증금리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본연의 역할인 증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한데다 고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카카오뱅크의 금리 6~10%미만 구간 신용대출 비중은 9.4%로 집계, 지난해 말 비중인 3.2% 대비 6.2%p 상승. 케이뱅크는 6~10%미만 신용대출 비중은 23.1%를 기록

동산담보대출 3조 돌파했지만, 목표 달성 멀고 불균형 여전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3조원을 돌파하며 시행 초기에 비해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대했으나 2022년까지 6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모 올해 4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동산담보대출대출 잔액은 약 3조30억원. 이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지식재산권 등 기업 보유 동산 담보 대출

중개형 ISA, 증권사 새 먹거리 부상...고객 유치 경쟁 '치열'

이코노믹리뷰

투자중개형 ISA의 가입금액은 지난 2월 말 62억원에서 3월 말 3,146억원으로 3,084억원 증가. 한달 만에 약 50배 수준으로 급증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한 달 빨리 중개형 ISA 상품을 선보였고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하루 거래대금 40兆, 주식거래 규모 추월... 제도권 편입 본격 논의

디지털타임스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 정부는 그동안 기초자산의 부재, 큰 가격 변동성 지닌 가상자산은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 하지만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며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업계 안팎에서 이뤄지는 중

퇴직연금시장 선점하자... 증권가에 번진 `수수료면제` 경쟁

디지털타임스

삼성증권이 시작한 IRP 수수료 전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고객으로까지 혜택을 확대, 유안타증권은 퇴직금융 IRP 수수료까지 모두 면제하는 혜택을 선포 퇴직연금 사업자 간 수수료 경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

토스증권, 올해 4번째 유상증자 결정...자본금 800억 도달

연합인포맥스

4일 토스증권은 전일 8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세번에 걸쳐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 토스증권 관계자는 자금은 IT 인프라 구축, 해외주식 매매 등 추가 서비스 계획에 따른 인력 채용과 마케팅 비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